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담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 재검토되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9월 5일 개발원 서래당에서 유시민 장관 초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유시민 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과정 수강생 4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80여분가량 진행되었다.

유시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행정조직을 통제관리 중심의 조직으로부터 봉사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그 성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최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과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 유시민 장관은 “지역복지 수효파악과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조직 개편에 집중되었으며 전국 시군구 현장에서 느끼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공개되었다.

박찬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충북 회장은 “이번 1차 개편은 일반행정체계 내에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일반직 행정직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2단계 개편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밀집지역만이라도 사회복지사가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손신기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서울 회장은 기초단체들 중 상당수가 팀장급을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모두 근무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복지직이 팀장을 맡은 경우가 20여개 중 하나도 없다. 이는 일은 일대로 많으면서도 승진기회가 없어 사기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팀장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밖에도 최승동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전남 회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동료 중 한명이 상담을 가서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중상

을 입고 입원하는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신변상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하였다.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에 대한 부족문제도 지적되었으며 지방분권 후 나타난 지방의 재정부담 압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승진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과정에서 팀장의 자격을 단수직으로 하지 않고 복수직으로 한 것에 있는 것 같다”며 “20여개 동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팀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동의하였다.

또 유시민 장관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여러분이 해야 할 기존의 업무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많이 되지만 우리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직 여러분에 대한 기대”라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 진전시키는 성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와함께 권덕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팀장 승진은 2단계에서는 반영되도록 행자부에 요청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